

취병(翠屏)의 조성방법과 창덕궁 주합루(宙合樓) 취병의 원형규명

정우진^a · 심우경^b

^a고려대학교 대학원 · ^b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문헌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취병의 특성과 제조소를 분석하고 주합루 취병의 원형적 물상을 고찰한 것으로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등의 문헌분석결과 취병은 지지대의 종류, 식물소재, 식재형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지지대는 대나무, 진장목(眞長木), 기류(杞柳)에 따라 분류되며, 사용된 식물소재는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등의 상록 침엽교목의 사용이 우세했다. 식재방법은 자연지반에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나, 분을 사용하여 인공지반에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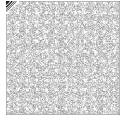
둘째, 문헌에서 취병은 상록수를 사용한 식물 병풍에서만 사용된 용어였으며, 이의 상위범주어는 '병(屏)'으로 지시되었다. 즉 취병은 사계절 푸른 상록수의 특성을 일컫는 '취(翠)'와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든 수벽 구조물인 '병'을 합성한 말이다. 또한 취병이라는 명칭에는 자연 산수를 묘사하는 문학적 상징성과 무산십이봉에 내재된 신선사상이 융화되어 있었다.

셋째, 1880년대에 촬영된 주합루 취병은 주목으로 보이는 침엽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높이가 거의 2m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때 취병은 철거되었으나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주목이 몇 주 존치되어 있었고, 식재 시기가 불분명한 향나무가 어수문 양 옆으로 줄기를 늘어뜨린 채로 가려지고 있었다. 이 향나무는 한일병합 후 일본인에 의해 이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같은 시기에 어수문 좌우 협문이 변형되어 일본 건물의 합각모양을 한 지붕이 씌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08년 창덕궁 주합루 취병은 복구되었으나, 정밀한 고증의 부재로 원형적인 취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식재된 조릿대가 동해를 입어 상당 부분 고사됨으로써 취병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가능한 본래의 식물소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취병 제작기술의 개발, 현대 조경에 응용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주제어 전통조경, 조선 궁궐, 동궐도, 임원경제지, 병풍

투고일자 : 2014. 03. 25 | 심사일자 : 2014. 04. 16 | 게재확정일자 : 2014. 05. 26



서론

취병은 조선후기에 개발된 우리 고유의 조경 시설물이자 계승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다.⁰¹ 취병은 조형적인 지지대에 식물을 결속해서 만든 일종의 실외용 병풍으로서, 차폐와 구획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수벽 또는 생울타리를 말한다. 취병이 우리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략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조선의 사대부 사이에서 유행한 명대 문인 문화의 영향, 특히 중국의 아집도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유포되어 감상되고 그것을 모방한 모임들이 성행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린다. 당시 한양의 사대부들, 이른바 경화세족(京華世族)은 중국 아집도(雅集圖)에 묘사된 정원의 모습과 배치된 소품들을 재현함으로써 문화적 지위를 고양하고, 우아한 문인의 삶을 지향하고자 했다. 취병 역시 그러한 시대적 풍토 하에 창안된 산물로서, 문인의 기품을 표방하는 장치로 조성된 것이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취병이 궁궐조경에 도입된 시기는 18세기 중엽부터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정조가 건립한 규장각(奎章閣) 주합루에 취병이 조성된 이래로 창덕궁 곳곳에 취병이 설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19세기 초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된 「동궐도」에는 내전권역과 후원에 설치된 취병이 10개소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길게 조성된 주합루의 취병은 아치형의 협문과 조화되어, 차폐·경관향상·의미부여 등 취병에서 유도되는 제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는 점에서 궁원 취병의 대표로 단연 부각된다. 그러나 주합루 취병을 비롯한 궁궐 취병은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함께 모두 철거되는 수난을 겪는다. 당시의 조

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겨지지 않아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가 우리 궁궐에서 자행한 여타의 훼손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조선왕실의 흔적을 지우고 일본식 공간으로 변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일제에 의해 변형·멸실된 궁궐 문화재는 그간 꾸준히 복원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0월에는 창덕궁 주합루 취병이 100여년 만에 복구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그동안 이루어진 궁궐 및 「동궐도」의 연구를 통해 제기된 취병 복원에 대한 열망이 가시화된 것이었으며, 나아가 우리 궁궐에 실존했던 조경요소를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된 취병은 대나무로 지지대를 제작한 것 외에는 고문헌에 기술된 취병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문헌과 도상자료를 통한 나름의 고증과정을 거친 결과물이었고 재현물의 위상으로 조성되었다 해도 구경, 형태, 식물소재 등에서 원형적인 형식이 반영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취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경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시초는 조선시대 조원 기법을 연구한 변우혁(197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궁궐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임에도 「동궐도」와 『임원경제지』의 자료를 분석하는 등 매우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개되었다. 그 후로 취병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주목 받지 못하였으나, 각 분야의 궁궐 연구가 축적된 2000년대에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백종철 등(2003)은 주합루 화계와 취병을 대상으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고, 근래의 연구로 김영모(2012), 정우진과 심우경(2013), 정우진 등(2014) 등으로 이어오고 있으나 조선 취병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01 조선시대에 나타난 취병이 중국 죽병(竹屏)에 기반한 시설물이었다는 점은 근래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 취병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중국의 취병 제작 기술이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 회화에 나타난 죽병의 도상을 유추 복원한 결과이거나 청국에 실존했던 실물 죽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선의 장인들이 창작한 산물로 파악된다(정우진과 심우경 2013; 정우진 등 2014). 이에 대한 근거 몇 가지를 들자면, 우선 조선에 조성된 취병은 중국의 것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주로 침엽수가 사용되었다. 반면, 중국의 도상자료와 문헌자료에서 침엽수를 사용한 취병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목의 상지를 돌출시켜 장식하는 기법 역시 명청대 죽병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조선의 취병이 명대 이전에 제작된 소수의 중국 회화작품 속의 취병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확산과정에서 형태와 식재소재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한편 중국에서 죽병이 '화병(花屏)', '병개(屏架)', '화가(花架)', '화리(花籬)', '죽리(竹籬)', '요란(筍欄)' 등의 다양한 이명으로 불려졌던 반면, 조선에서 '취병'이 공식명칭으로 고착된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밖에 양국 취병에서 나타나는 지지대 격자형의 차이를 고려해 보더라도 조선의 취병은 중국에 축적된 원림조영의 제작기술과는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에 의해, 취병은 중국의 회화작품에 가시된 죽병이 조선의 지식인과 장인에 의해 변안된 새로운 형식의 정원요소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나아가 조선후기에 '개발된' 우리 고유의 조경양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문헌의 고증을 바탕으로 조선 취병의 특성과 시공방법을 구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설치된 취병의 원형 복원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취병 재현계획 시 검토되었던 문헌과 회화자료를 재검토함은 물론, 조선 취병에 대한 이론화작업을 병행하여 주합루 취병의 원형 복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및 해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에 기반한 취병 시공법과 제요소의 검토, 도상자료 분석에 따른 크기 및 형태 진단, 그리고 현지조사에 의한 실태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취병의 종류, 시공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취병의 물리적 형식에 대한 고증작업이 이루어졌다. 분석된 자료는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4권 양화(養花)편 노송(老松)조 「취병관결법(翠屏縮結法)」과 『문희묘영건의궤(文禧廟營建廳謄錄)』 공작(工作)조, 『해동농서(海東農書)』 3권 목류(木類) 「중(樅)」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원지(藝畹志) 「관병법(縮屏法)」 및 만학지(晩學志) 목류(木類)편 「중(樅)」조가 해당된다. 특히 『임원경제지·예원지』는 아직 번역된 저작물이 없어, 고려대학교 심경호 교수 연구실의 도움으로 번역된 내용이 수록되었다.⁰² 문헌에 나타난 척도는 덕수궁에 소장된 황중척에 의거한 주척(周尺) 0.2066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편의상 1척에 0.2m로 계산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취병의 대표로 부각되어 있는 창덕궁 주합루 취병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졌다. 연구의 진행은 「규장각도」, 「동궐도」를 시초로 하는 주합루 취병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이어서 2008년 복원공사의 경위와 개선점을 기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셋째, 고종 연간에 만들어진 기록물은 궁원을 비롯한 사적지가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많은 복원사업에서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합루 취병 재현공사가 이루어진 2008년 이전에는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동궐도」가 활용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취병의 정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880년대 고종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촬영한 사진과, 미국 임시 대리공사로 조선에 체류하고 있던 조지 푸크(George Clayton Foulk)가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여, 고종연간의 기록물로서 복원 기준점을 마련하는 자료로 소개하였다.

넷째, 현지조사를 통해 창덕궁 주합루 앞에 복원된 취병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2008년 취병이 시공되기 직전에 작성된 계획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을 구득하는 한편 당시의 공사관계자를 인터뷰하여 취병 복원공사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2. 취병관련 용어의 정립

취병의 부재, 형식 등을 지시하는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용어를 수용하되 취병의 세부적인 속성을 지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로서 진행하였다.

첫째, 조형적인 외형을 구성하고 식물을 결속하는 나무 부재는 ‘지주대’, ‘지주목’, ‘지시대’, ‘틀’ 등으로 명명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식물의 줄기를 유인하여 외형을 만드는 취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대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02 바쁜 외중에 번역을 교정해 주신 심경호 교수님과 오보라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둘째, 취병의 형식은 김영모(2012)에서 '대나무 형', '영롱담 형', '바자울 형'으로 분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다 세분하여, 지지대의 소재에 따라 '대나무 결속형', '진장목 결속형', '기류 유인유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물소재의 식재 방법에 따라 자연지반에 식재하는 '취지법', 분에 식재하는 '취분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명칭은 고문헌의 내용에 근거하고, 취병에 관련한 각기의 개념을 대표하는 목표어로 선정된 것이다. '영롱담 형'의 경우, 원문 그대로 '영롱형'으로 수정하되 지지대의 소재가 기류인 점을 반영하여 '기류형'이란 명칭도 병기하였다.

셋째, 중국의 죽병(竹屏)과 조선의 취병은 공통적으로 '식물을 소재로 조성된 옥외용 병풍'이라는 용도가 내재된 명칭으로, 이러한 명칭을 아우르는 개념어가 필요하다. 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취병은 상록수 식물 병풍에만 적용된 이름이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낙엽수로 조성된 것은 취병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식물을 소재로 만들어진 스크린(screen) 또는 트렐리스(trellis)의 형식을 '병'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병은 한자를 병기해 주지 않으면 가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병풍', '식물병'이나 '식물병풍'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다.

식물병풍관련 사료의 검토

1. 명칭

1) 가(架; 架子)

식물병풍으로 사용된 취병에 대한 기록은 모두 조선 후기

의 사료로 국한된다. 따라서 취병의 성립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조선후기로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취병이란 명칭은 아니었지만 고려시대 및 조선초기의 사료에도 장미과 식물이나 포도나무를 이용한 식물병인 '가(架)'가 발견된다. 먼저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저술한 『동국이상국집』에서, “꽃다운 동산에는 두귀(葦)꽃 피었고, 이슬 띤 가자(架子)에 도미(醯醢)가 얹혔다.”⁰³, “(누관 앞에) 시렁(架子)을 만들고 포도 덩굴을 틀어올려 차양을 삼았다.”⁰⁴라는 글이 나타난다. 여기서 도미(*Rubus rosifolius* var. *coronarius*)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죽병의 소재로 애용되던 꽃이었으며, 포도 덩굴은 고려시대의 문장에서 종종 식물병풍의 소재로 등장한다. 또한 조선 초에 문장가로 활약했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에도, “시렁(架) 가득 장미꽃(薔薇)이 비를 맞았다.”⁰⁵, “집 울타리에 바람 불고 비가 설설 내리자, 한 시렁(架) 장미꽃이 제 몸을 지탱 못 한다.”⁰⁶, “포도 덩굴 한 시렁(架)은 연못에 그늘을 드리운다.”⁰⁷라며 장미와 포도나무로 만든 식물병을 읊었다. 중국에서 화가(花架)는 보통 문인들이 그 아래 모여 주식(主食)하며 모임을 갖는 문화적 향유와 관련된 다(정우진 등 2014).⁰⁸ 위 시문에서 묘사되는 ‘꽃 시렁’도 문인의 정서에 있어서 화사한 소경관을 만드는 소재이자 바라보고 감상하는 이에게 고상함과 운치를 가져다주는 경물로 묘사되어, 양국 식물병의 이용이 상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미과와 식물과 포도나무 가자는 일견 조선후기에 존재했던 취병의 전신처럼 보이기도 한다. 취병은 상록수의 사용이 우세한 차폐용 시설로서 사용되었지만, 위 글에 나타난 ‘가’·‘가자’는 주로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양시설 또는 시상(詩想)이 되는 풍광경물일 뿐이다. 또한 낙엽수의 특성상 이들 소재로 만든 시렁은 계절에 따라 개방되었다가 차단되고 할 것이므로 울타리가 밀실해지는 시기에만 그 기능

03 芳園開葢，露架拆餘籬。(『東國李相國集』 제5권 古律詩: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

04 架蒲桃遮陽。(『東國李相國集』 제12권 古律詩: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

05 滿架薔薇初過雨。(『四佳集·四佳詩集』 제9권 詩類 「次韻洪日休」 三首: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

06 微風院落雨絲絲，一架薔薇不自持。(『四佳集·四佳詩集』 제3권 詩類 「卽事」: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

07 葡萄一架蔭池荷。(『四佳集·四佳詩集』 제13권 詩類 「又用前韻」: 한국고전종합DB에서 발췌.)

08 당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은 『의산잡찬(義山雜纂)』에서 풍광경물(風光景物)에 손상을 입혀 남의 흥취를 깨뜨리는 저속한 행위를 '살풍경(殺風景)'으로 규정하였다. 그가 살풍경의 꼴볼건으로 든 몇 가지 예 중에서 '꽃 시렁[花架] 밑에 닭과 오리를 기르는 것'이 있을 정도로 화가는 중국에서 화려함이나 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였다.

이 발휘되는 한계도 예상된다. 따라서 취병 이전 사료에 나타난 시렁은 첫째, 꽃이 아름다운 화관목이나 덩굴성이 강한 포도나무를 위주로 조성되었으며 둘째, '병(屏)'이란 명칭과 교차가 가능한 격자형 지지대(지주목)의 통칭이었으며 셋째, 동서양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조성된 트렐리스의 한국적 형식이자 넷째, 훗날 취병과 공존했던 식물병풍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다.

2) 병(屏)

조선에서 사용된 취병이란 명칭은 글자 뜻 그대로 '수목의 가지를 틀어 올려 병풍처럼 만든 비취빛의 차폐시설'로 정의된다. 또한 명칭이 기입된 도상자료와 『임원경제지』 등의 사료에서 '취병'명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이름은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으며, 조선 고유의 소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근래, 조선후기에 등장한 취병이 중국 죽병(竹屏)에서 비롯되었고, 초기 용도가 기능보다는 중국 문인고사에서 내재화된 문화적 맥락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⁹⁾ 그렇다면 조선의 취병은 중국 죽병에 대응되는 산물이었으며, 양자 사이에는 수벽의 물리적 구조를 일컫는 '병(屏)'의 명칭으로 작명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식물병풍의 명칭에서 도출되는 속성과 『증보산림경제』, 『임원경제지』에 기술된 어휘적 용례를 고려해 본다면 '취병'이 조선의 수벽 구조물을 포괄하는 상위범주의 용어가 아니었을 여지를 남긴다. 명칭에서 보듯, 중국의 죽병은 지지대의 소재가 대나무였던 특성이 반영되어 성립된 용어이다. 물론 식물소재로 사용된 꽃나무가 부각되어 '화병(花屏)'이라고도 불리졌지만 이것은 모두 '병'이라는 용어의 공통점을 제외하면, 접두어가 조선과는 분명히 달랐다. 취병은 식물소재가 상록수인 특징이 반영된 이른바 '사시사철 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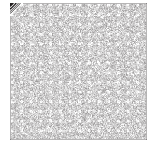
름을 유지하는 병풍'이란 뜻이다. 따라서 양국 식물병풍명의 차이는 사용되는 식물소재의 차이를 대변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적용된 명칭인 취병의 경우 '취(翠)'라는 속성이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식물병풍의 결속법을 밝힌 『임원경제지』에 나타난다. 여기서 취병을 기술하고 있는 편제는 '(식물로) 병풍[울타리]을 엮는 방법'이란 뜻의 '관병법(縮屏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병(屏)은 상록수, 낙엽수의 식물소재의 여부에 관계없이 '격자형 수벽 구조물'의 유형으로 지시된다. 이 글은 식물소재에 따라 서술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1)상록수松, 赤木, 側栢, 杜冲之類, (2)덩굴식물花木之藤蔓者 그리고 (3)줄기가 짧고 색이 고운 야생화[石竹射干等一切野花之短莖色艷者] 즉 초화류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설명에 주목해보면, 상록수는 '관결취병(縮結翠屏)'이라 하여 '취병'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된다. 그러나 덩굴식물을 기술할 때는 "모두 나무시렁에 병으로 엮을 수 있다[皆可架木縛屏]."고 함으로써 취병이란 용어가 배제되고 단지 '屏'으로 지시되는 점에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야화(野花)를 사용한 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단을 수놓은 병[錦繡屏]"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기류가 지지대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할 때 "기류를 엮어 병을 만드는 것[編杞柳爲屏]"으로 서술된다. 그렇다면 '취병'은 오직 상록수를 사용할 때만 사용된 용어이며, 여타의 식물소재로 만든 형식이 단순히 '병'으로 지시되었다는 점은 명확해진다.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병은 '지지대를 세운 병풍 형식의 수벽 또는 화벽'이라는 상위 범주의 용어로 규정되며, 취병은 상록수를 사용한 식물 병풍에 국한된 명칭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문헌에 나타난 병의 용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문집류에서 식물소재의 명칭에 따라 병의 이름을 삼았던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대부분 소나무로 만든

09 정우진과 심우경(2013)을 참조할 것.

10 이러한 사실은 양국 식물 병풍이 '격자형의 대나무 틀에 수목을 구속[결속]한 수벽'이라는 외연적 구조 외에는 별다른 인과성이 없이 발전되었음을 시사한다.



취병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취송병(翠松屏)’이나 ‘송병(松屏)’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표 1>에 서는 원(園)과 정(庭)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된 ‘소나무 병’이 반드시 취병으로만 불리지 않고 있다.

<표 1-A>에는 집의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취송병이 기록되어 있다. 보통 조선의 시인묵객이 말하는 ‘취병’은 녹음이 우거진 푸른 석벽이나 봉우리를 일컫는다. 또는 병풍처럼 두른 산줄기도 취병이라 불렀는데 모두 산수의 형상을 묘사한 용어이다. 송병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표 1-A>에 나타난 취송병은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소나무 숲’이라는 일반적인 용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작자가 직접 심었다는 말이나 ‘고인의 신령한 성정의 표현은 중국에서 전승된 고사(인물화) 속 죽병의 함의와 같은 맥락¹¹이므로, 조경 시설물로서의 취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B>와 <표 1-C>도 소나무 숲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물 취병인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취병이 집안에 위치해 있다는 서술이나 햇빛을 가리는 차양으로 사용된 점 그리고 건축적 장수(丈數)로 규모가 묘사된 점에서 소나무로 제작된 취병으로 여겨진다.

<표 1-D>의 경우 『임원경제지』의 기술을 연상시키는 묘사로 인하여 실물 취병이 지시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취병이 설치된 곳은 전택(殿宅)과 후정인데, 글의 정황상 사랑채로 여겨지는 건물 주변으로 보인다. 이 글은 ‘소나무로 병을 만들었다[松爲屏]’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런 내용만 보아도 송병이 인위적인 시설물로 확신되지만, 그보다 지엽이 뻗어지지 못한 부분¹²에 가지를 잡아 당겨 수벽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서술, 지지대(管)를 촘촘히 설치했고 대나무 시렁(架)이 늘어서 있는 점, 그리고 해지는 형상 즉, 아치형의 문호에 대한 묘사(門設關至旰)는 일반 사대부 주택에 설치된 취병에 대한 사료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기병(杞屏)에 대한

【 표 1 】 문집에 나타난 송병관련 내용

구분	번역문	원문
A	취송병(翠松屏)은 가지 높이가 솟아있는데, 늘 집의 문정(門庭)을 감싸고 있다. 줄기 하나에서 뻗은 천 조각이 뿌리를 덮었고 된서리와 큰 눈에도 그 푸름을 고치지 못한다. 내가 손수 심은 이래로 지금 이와 같이 되었다. 나무뿌리에서 복령(茯苓)이 날 때가 어느 해나 될는지, 나뭇가지 바라보며 아침저녁으로 즐겨온 기색 지으니, 고인의 신령한 성정을 기르고자 하노라.	翠松屏偃寒, 長護我門庭。一幹千條却庇根, 嚴霜大雪不改青, 自我種來今如此。何年樹底生茯苓, 杳柯怡顏唯日夕, 好令高人養性靈。【보안재집(保晩齋集)】 2권 「정열팔가(庭列八歌)」
B	그대 집에 와서 서늘하게 앉아있자니, 송병(松屏)의 한쪽 면이 시원하고 방방하다.	來坐君家意欲涼, 松屏一面淨方方。【동계유고(東溪遺稿)】 2권 「西谷精舍, 與嚴叔一, 馬景義, 金君始小酌。」
C	반송(盤松)으로 장막을 만드니 사시가 푸르다. 호가(豪家)의 비단 병풍을 쓰지 않았고 <u>높이는 2칸에 높이는 2장에 지나지 않지만</u> , 서정(西庭)의 절반을 가린다【이는 송병(松屏)이다】.	盤松爲障四時青, 不用豪家錦繡屏。濶可二間高二丈, 也能遮隔半西庭。【右松屏。】【오재집(寤齋集)】 2권 「화훼십이영(花卉二十詠)」
D	전택(殿宅)에 소나무로 병(屏)을 만드니, 푸르름이 궤안(几案)을 두른다. 성돌을 따라 뿌리를 옮겨 심고, 높은 화현(華軒)에 필요치 않아 산관(山館)을 들렀다. 비단을 펼친 듯 무늬가 돌아 있으니 줄을 이은 옷깃이 장막을 이룬 듯하다. 뻣뻣하게 막지 못한 곳은 어디서 빌려오기도 어려워, 가지를 줄로 잡아당겨 휘어 놓았다. 관(대나무 대) 사이가 벌어진 것은 예(禮)로 말하면 참람한 것이니, 그림으로 막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벌어진 수풀사이로 피꼬리가 서로 화답하니 보금자리가 생긴 학도 탄식하지 않는다. 중당이 다시 맑아 졌으니, 뒷마당(後庭)을 가로막는 것은 어찌해야 하니? 대나무를 횡으로 늘어놓아 시렁(架)을 만들었는데, 칩으로 엮어매어 짝을 짓고 가늘게 엮어 바람만이 통하게 둔다. 그리고 문빛장은 해지는 모양에 이르게 한다. …(중략)… 비단 창문 그림자 서로 엮혀 푸른 적삼 빛깔 서로 어지러진다. 트이고 막힘이 질서 정연하게 벌여있는데 꾸밈새가 가지런하여 흐트러지지 않는다. 굵어진 그물 모양이 청산과 같고 영롱(玲瓏)은 초록 비단을 펼친 듯하다. 고리 바들(杞)의 물성은 감아 올리기 쉬우나 장인의 마음은 철에 풀무질 하는 것과 같다네. (하략) …	殿宅松爲屏, 蒼翠遠几案。移根循砌植, 屈枝當門捍。未必做華軒, 卽此護山館。縹緲縠生紋, 聯翩袵成幙。不密遮難借, 欲低樛以絆。管塞禮云僭, 韋障畫徒護。隔林鶯相和, 添巢鶴無歎。中堂清更可, 後庭障奚但。橫縱竹爲架, 網繆葛與伴。綰細通猶風, 門設關至旰。… 綺疏影相纏, 翠衫色共爛。疎密秩有序, 表襮整不亂。曲折靑青山, 玲瓏鋪綠綬。物性杞順捲, 匠心鐵入鍛。… 【오서집(梧墅集)】 3책 「송병려구 백영호초하(松屏聯句 伯英號蕉下)」

※ 밑줄은 필자 강조, 필자 번역.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

11 정우진과 심우경, 2013, pp.7~10, p.17을 참조할 것.

12 취병에서 수목이 돋성한 부분이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묘사도 발견된다.

언급이다. 시문의 형식상 세밀한 묘사는 지양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굽은 그물 모양[曲折罽]’, ‘영롱(玲瓏)’이라는 서술은 기류로 만든 병을 지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¹³ 이 글의 작자인 박영원(朴永元 1791~1854)은 순조에서 철종 연간에 호서관서, 이조판서, 우의정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었다, 『임원경제지』(1827년경)를 저술한 서유구(徐有榘 1764~1845)와 동시대 조정의 내직에 있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동궐도」(1828년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궁궐에까지 취병이 확산되어 있던 터에, 박영원이 자신의 저택에 취병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작자가 경험한 시대적 환경과 그의 이력을 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

이상과 같은 송병의 용례는 병이 취병보다 상위범주의 용어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그럼에도 취병이 식물 병풍의 고유한 명칭으로 굳어진 것은 상록수의 사용이 우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사계절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의 생태적 특징이 ‘취(翠)’로 반영된 것이겠으나, 취병이 본래 조선의 지식인에게 있어 매우 고상하고 익숙한 문학적 표현이었다는 것도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고전종합DB¹⁴에서 ‘취병’으로 검색해 보면, ‘취병산(翠屏山)’, ‘취병비폭(翠屏飛瀑)’, ‘취병산수(翠屏山水)’ 등의 용례가 나타나는데, 모두 자연산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명칭이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취병의 본래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소나무로 엮은 식물병풍을 취병이라 부르는 관행에 의의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래 『송남잡지(松南雜識)』에서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은 취병이 청산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식물병풍을 취병이라 부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재삼의 원론적인 지적에도 불

구하고, 당시 취병은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표현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서 소나무 중에서 오림송(五鬣松)과 칠립송(七鬣松)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노송과 비슷하다. 두보(杜甫) 시의 주석에서, “양원(羊元)이 누워서 수산(首山)을 바라보며 ‘이것이 취병(翠屏)이다’라 하였다.” 유종의 문장에도 청산을 병풍(屏風)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서리서리 엮은 노송을 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¹⁵ (조재삼 원저, 강민구 역 2008: 174의 번역을 필자 수정)

또 한 가지 취병 명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취병산취병의 문화적 전형이다. 그것은 중국 사천성(四川省) 무산현(巫山縣)의 명산인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에서 찾을 수 있다. 무산십이봉의 제2봉명은 이름은 ‘취병(翠屏)’이다.¹⁶ 그런데 우리 조정문화에서 무산의 열두 봉우리는 삼신산과 더불어 신선계를 표상하는 상징물이었고, 정원 내에 봉래, 영주, 방장이나 무산십이봉의 각 봉우리 명호로 이름붙인 석가산이 종종 조성되어 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병이 무산십이봉을 조영했던 오랜 전통과 결부되어 신선사상의 맥락으로 고양된 명칭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의 시인묵객들은 푸른 절벽을 묘사할 때 흔히 취병을 운운했으며 때때로 신선이 산다는 동천명이나 구곡명승의 이름을 설정할 때에 취병을 차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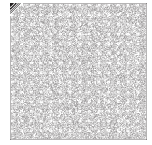
이처럼 취병과 연관된 개념들에는 푸른 절벽을 묘사한 문학적 관습이나 무산십이봉에서 전승된 선계의 상징이 있었으며, 이것이 정원문화에 투영되어 상록수로 조성된 식물병풍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13 기병(杞屏)은 중국 죽병과 마찬가지로 지지대의 소재로 작명된 명칭이다. 기류를 이용한 병에 관련된 내용은 『임원경제지』에서만 대략적으로 나타나고 그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간혹 정원을 묘사한 시문에서 기병(杞屏)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글에서 초화류를 심은 병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의 시문에서 기병을 보라. “아침 응달은 오히려 기병(杞屏) 서쪽에 있으니 비온 뒤 울타리엔 푸른 이끼가 자란다. 제비는 글 읽는 책상을 엿보고 학은 진흙에 걸음하며 글씨를 쓴다(朝陰猶在杞屏西, 經雨籬根長碧藜, 燕學讀書窺案帙, 鶴如作字步庭泥.)” (『귀록집(歸鹿集)』, 3권 「僑居中載浩鄭來僑至拈韻」, 필자 번역).

14 <http://db.ikc.or.kr>

15 西京雜記曰, 松有五鬣松七鬣松, 之名似今老松也. 杜甫註, 羊元偃臥首山曰此翠屏, 柳文青山爲屏風也. 今盤結老松爲翠屏者訛也. (『松南雜識』, 草木類, 老松).

16 무산십이봉 각 봉우리의 이름은 망해(望霞), 취병(翠屏), 조운(朝雲), 송만(松巒), 집선(集仙), 취학(聚鶴), 정단(淨壇), 상승(上昇), 기운(起雲), 비봉(飛鳳), 등룡(登龍), 성천(聖泉)이다.



중국 죽병에 근원한 ‘병’이라는 용어의 유입 외에 식물병풍을 취병으로 명명하게 된 부가적인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취병은 (1)상록수로 조성된 독특한 수벽 구조물, (2)푸른 산봉우리, (3)신선사상의 세 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형성된 다의적 명칭으로 규정된다.

2. 형식

〈표 2〉의 문헌 분석결과, 식물병의 형식은 (1)지지대의 종류, (2)식물소재, (3)식재형식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표 2 】 취병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고문헌 및 내용

문헌	내용(번역문)	원문
『增補山林經濟』 4권 『養花編』 老松條, 『翠屏縮結法』 (1766년)	그 해에 혹은 빈 땅으로 가려 막아도 괜찮은 곳이면 반드시 지형이 굽고 곧음에 따라 곧은 소나무를 줄지어 심되, 그 줄은 똑바르게 해야 한다. 소나무 사이는 2척(약 0.4m) 거리를 두고 내버려 둔다. 스스로 1장(약 2m) 정도로 높이 자란 후에는 두 팔뚝만한 크기의 직장목(直長木) 몇 개(株)를 소나무 사이에 끼워 꽂는다. 또한 긴 대나무로 긴 나무 위에 2~3층의 시렁을 매되, 두께와 높이는 담과 같아지게 한다. 그런 다음에 소나무 싹이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살펴보고서 가지와 줄기가 쉽게 구부러지는 것은 그 성질에 따라 잡아 당겨준다. 만약 가지가 크면 끌어당겨 구부러서 삼이나 칩의 껍질을 가지마다 잡아 매어주되 너무 꼭 내주지 않는다. 만약 가지를 잡아당기다 그 껍질을 끊어트리면 기맥이 통하지 않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잡아 뺄 때는 쓸데없는 가지를 베어내 버려도 무방하다. 처음 매어줄 때는 느슨하게 매어야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자연히 조여진다. 빗(櫛)과 같은 푸른 잎이 즐길 만하다. 3년에 한 번씩 다시 잡아 매어주는 것이 좋다.【2월과 7월에 잡아매면 좋다. 물가에는 금한다】. 보통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두충나무 종류는 화분에 심거나 땅에 심던 간에, 방형이나 원형의 모양을 지형에 따라 잡아 매어 만들면 안 될 것이 없다. 다만 아름다운 국화꽃을 대바구니처럼 둥글게 엮어 놓는 것은 너무나도 품위가 없다. (자료: 한국 농촌진흥청(2003)의 번역문을 수정함)	當年或空地可以遮障之象，必須從地形曲直列植直松，而其行務要方正。松間相離二尺許任。其自長一丈高然後，用直長木兩臂大者若干株莢松列挿，又用長竹結數層架於長木之上，厚薄高下一如牆，撲然後視松之發萌未久，而枝幹易於轉屈者，順其性而攀挽之。若枝大則，鉗而曲折之，用麻葛皮，逐枝約束，不宜太緊。若刺斷其膚，氣脈不貫通，多有不活者。縮結之時削去穴枝亦無妨。所縮初要疎，白年久之後，自然密合。翠葉如櫛可玩，三年一改縮可也【二月七月可結，水上則禁】。凡當松赤木側栢杜冲之類，勿論就盆就地，方圓隨地形，縮製無所不可。惟佳菊團結如籠者俗甚。
『文禮廟營建廳贈錄』 工作條(1789년)	제실 북쪽 편 취병 23칸에 소요되는 물품은 기둥 안쪽 소연목(小椽木) 79개, 외목(椽木) 35단(丹), 진장목(眞長木) 50개, 중죽(中竹) 55개, 생괘 59사리(沙里)이다. (자료: 필자 번역)	齋室北邊翠屏二十三間所入，柱次 小椽木七十九介，椽木 三十五丹，眞長木 五十介，中竹 五十五介，生葛 五十九沙里
『海東農書』 3권 木類 「樅」 (1798년경)	중(樅: 노송나무)의 잎은 소나무와 같고 몸은 측백나무와 같다. 세간에서 노송(老松)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무이다. 정원 안에 심는 것이 좋고 가리개를 만들므로, 세간에서 취병이라고 부른다. 그 나머지 가지 끝을 엮어서 호로(壺蘆)나 산개(傘蓋)나 날아가는 학의 형태를 만든다. 가지가 매우 부드러운 나무 가죽 끈으로 잡아내면 더욱 무성해지는 것도 그 성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증보산림경제】. (자료: 농촌진흥청(2008); 서유구 원저, 박순철과 김영 역주(2010)의 번역 인용. 『임원경제지』 만학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樅松葉柏身俗名老松者是也。宜種廷院之內作棚，俗號翠屏。縮其餘梢，爲壺蘆，傘蓋，翔鶴之形。枝甚柔，翻縮結則茂茂，亦其性然也。【已上增補山林經濟】
『林園經濟志』 藝畹志』 「縮屏法」 (1827년경)	무릇 취병을 엮는 것은 대나무 중 줄기가 굽은 것을 사용하여, 초목을 끼고 2열로 늘어 꽂는다. 또 대나무를 깎아서 얇고 길게 하고 가로로 층계를 만들어 씨줄과 날줄을 서로 견고하게 한다. 가지 중 싹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부러지기 쉬운 것을 보면 그 성질에 따라 잡아당겨 묶어준다. 가지가 굽은 경우에는 꺾(鉗): 집게와 유사한 공구의 일종일 것으로 추정)으로 구부러 뜨리고 쓸데없는 자가지는 잘라버린다. 또 삼이나 칩의 껍질을 이용하여 잡아 매어주되 너무 꼭 매주지 않는다. 만약 가지를 잡아당기다 그 껍질을 끊어버리면 기맥이 통하지 않아 대개 말라 죽게 된다. 대개 소나무, 적목(赤木: 주목 추정), 측백나무, 두충(杜冲: 사철나무)의 종류는 분(盆)에 심거나 땅에 심던 간에, 방형이든 원형이든 형태에 따라 만들면 불가할 것이 없다.【2월과 7월에 잡아매면 좋다. 물가에는 금한다. 증보산림경제】. 무릇 화목 중 덩굴식물은 가지가 부드러워 구부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무시렁에 병풍으로 엮을 수 있다. 이는 이미 완성하기에 도 좋고, 또 잡초를 멀리하며 해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오직 겨울이 지나도 시들지 않은 것이라야 아름답다.【금화경동기】. 기류(杞柳: 고리버들; 키버들, Salix purpurea var. japonica)를 엮어 병풍을 만드는 것은 폭을 2척(약 0.4m)으로 하고, 길이와 너비는 뜻대로 한다. 이를 성글게 격자 모양으로 엮어 영롱(玲瓏)처럼 만들려면 그 속을 비옥한 흙으로 메운 다음, 석죽(石竹: 패랭이꽃)과 사간(射干: 범부채) 등의 줄기가 짧고 색이 고운 야생화(野花)를 격자에 따라 섞어 심는다. 꽃피는 계절이 이르면 오색 무늬가 빛나서 비단을 수놓는 병풍이 된다.【상동】. (자료: 필자 및 오보라 선생 번역)	凡縮結翠屏，用木若竹臂大者，夾其樹而兩行列挿之。又削竹，花薄而長，橫作層架，令經緯相固。視其枝幹之萌茁未久易於揉屈者，順其性而攀挽之。若枝大者，鉗而曲折之，穴枝則削去之，用麻葛皮，纏束之，不宜太緊。若刺斷其膚，則氣脈不貫，多致枯死也。凡直松赤木側栢杜冲之類，勿論就盆就地，方圓隨形，無所不可。【二月七月可結，水上則禁】增補山林經濟凡花木之藤蔓者，枝軟可揉者，皆可架木縛屏。既宜觀翫，且可遠草穢辟虫蟻。然性凌冬不凋者爲佳。【金華耕讀記】編杞柳爲屏，厚可二尺，長廣隨意。令躑躅玲瓏，填實肥土于中，取石竹射干等一切野花之短莖色艷者，逐種雜植之。時至花發，五彩綉燦。宛一錦繡屏也。【上同】

※ 위 사료는 저작 연도순으로 정렬된 것임. 밑줄은 『임원경제지』와 『증보산림경제』에서 상호 유사한 내용에 대한 서술을 표시함

【 표 3 】 고문헌에 소개된 취병의 형식 및 특징

구분	형식	특징	비고
지지대의 소재	대나무(결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기둥감으로 대죽이 사용됨 횡으로 층가를 만드는 소재는 대죽을 길게 자른 부재나 중죽이 사용됨 주로 상록수가 식재되었으며, 덩굴식물의 유인에도 용이함 지지대의 평면을 -자형, 동근형, L자형 등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진장목(결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둥감으로 대나무 대신 진장목을 사용 	문헌묘영건청등록; 가례도감
	기류(유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초화류를 사용 	임원경제지
식물 소재	상록수(결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 주목, 측백나무 등의 침엽수나 사철나무를 사용 지지대는 침엽수의 경우 결속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철나무의 경우 액자의 틀과 같이 외형을 정돈하는 용도로 사용됨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덩굴성 관목(유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에서 등나무, 철, 파마지만 나타났으나 다래나무, 머루 등 다양한 종류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지지대는 침엽수와 같이 가지를 결속해 줄 용도는 아니며 줄기의 유도재로 사용됨 	문헌묘영건청등록; 가례도감
	초화류(액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죽(石竹: 패랭이꽃), 사간(射干: 범부채) 등 꽃이 아름다운 소재 몇 종을 혼식할 경우 화려한 화벽이 연출될 수 있음 지지대는 주로 기류로 하며, 초화류의 높이에 맞춰 설치됨. 가지의 결속도 유인도 아닌 꽃을 감상하기 위한 시각적 틀로 기능함 	임원경제지
식재방법	자연지반 식재(就地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형의 모양에 따라 -자형, L자형, 곡선형 등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분에 식재(就盆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석, 월대 위 등 식재기반이 없는 곳에 조성됨 주로 -자형으로 조성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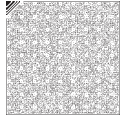
첫째, 지지대의 소재로는 주로 굵은 대나무가 부재로 이용되었으며, 참나무류로 다듬은 질 좋은 재목인 진장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증보산림경제』에는 소나무를 줄지어 심은 후 진장목(직장목을 지지대의 세로부재로, 대나무를 가로부재로 설치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임원경제지』는 처음부터 지지대의 소재로 대나무 한 종류만을 말하고 있다. 진장목과 대나무의 선택여부는 구득 가능성이나 가공되는 길이의 차이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류(杞柳: 키버들; 고리버들, *Salix purpurea* var. *japonica*)를 이용하여 지지대를 엮기도 했는데, 굵기가 얇고 유연한 부재를 사용하는 만큼 소관목이나 초화류에 한정하여 설치되었다.

둘째, 식물병풍에 식재되는 소재는 주로 상록침엽수였으며, 낙엽활엽수를 이용한 사례는 문헌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취병이 철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어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가변적 시설이 아닌 사시사철 유지되는 경계벽의 성격이 강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여타의 회화작품에서 활엽수로 만든 취병도 발견되므로 양자 모

두 조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1). 기류를 이용한 취병의 경우, 높이 자라지 못하는 식물소재의 성질 때문에 낮은 화벽(花壁)을 만드는데 이용되었을 것이나 『임원경제지』의 내용만으로는 온전히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셋째, 식재방법에 따른 형식은 자연지반에 식재한 취지법(就地法)과 분을 늘어놓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취분법(就盆法)으로 모아진다(그림 2). 이는 『임원경제지』에서 “무릇 소나무, 적목, 측백나무, 사철나무의 종류는 ‘분(盆)에 심거나 땅에 심던 간에[就盆就地]’, 방형이든 원형이든 형태에 따라 만들면 불가할 것이 없다”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그림 3-a>는 「동궐도」상 소주합루 월대 위, 즉 인공지반 위에 취병을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보여준다. 월대 위에는 어떠한 식재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분을 이용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이른바 취분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¹⁷ 따라서 ‘취분취지(就盆就地)’의 문헌적 근거와 「동궐도」의 묘사로 고려해 본다면, 인공지반 위라도 분을 활용하여 취병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7 혹은 대형나무화분(planter box) 위에 식재되었을 수도 있다.



【그림 1】 조선 후기 회화작품에서 식물의 성상이 식별되는 식물병풍

a. 작자 미상, 편이한 생활[洒肆], 북한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2007)에서 인용, b. 작자 미상, 지주집[縉紳燕閒], 북한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2007)에서 인용, c. 작자 미상, 효자도, 개인 소장, 윤열수(2000)에서 인용, d. 김홍도, 서원이집도(西園雅集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 취병의 조성에 있어 식재방법에 따른 구분



【그림 3】 동궐도에 나타난 월대 위의 취병

그렇다고 월대 위에 조성되는 취병이 모두 취분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림 3-b>는 월대 위라도 포장이 없는 상태에서 2단의 층가로 구성된 낮은 취병이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취병이 설치된 위치는 시민당(時敏堂)이 있던 터 즉, 과거 광연루(廣延樓)와 저승전(儲承殿)이 있던 월대 위이다. 이 건물들은 이미 오래 전에 소실되었는데, 「동궐도」

가 그려질 당시에는 월대 위에 있던 포장을 모두 걷어낸 상태로 보인다. 이는 화계, 석계와 동일한 식재환경으로서 분을 사용하지 않고 식재기반을 확보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취지법으로 볼 수 있다.

3. 조성방법: 관병법(縮屏法)

『임원경제지』와 『증보산림경제』는 취병의 설치 방법과 구성 부재를 밝히고 있다. 각기 ‘(식물을 잡아매어) 병풍을 만드는 법’이란 뜻의 ‘관병법(縮屏法)’과 ‘취병을 매어 묶는 방법’을 뜻하는 ‘취병관결법(翠屏縮結法)’이라는 표제를 달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 이를 토대로 취병의 시공 순서와 방법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표 4).

1) 식물소재의 식재

취병의 식물소재는 소수의 식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환경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이용되었다. 『임원경제지』와 『증보산림경제』에는 취병의 일반적인 소재로 소나무, 주목(赤木), 측백나무 3종의 침엽수와 사철나무(杜泚)가 제시되었다. 이런 상록수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경계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낙엽수에 비해 유지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임원경제지』에서 “(덩굴성을 가진 식물 중에서) 오직 겨울이 지나도 시들지 않은 것이라야 아름답다(惟凌冬不凋者爲佳).”는 기술은 상록성과 낙엽성 식물이 모두 이용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또한 “덩굴성을 가진 것은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언급되었으나, 여타의 문헌에서 다래나무, 칩 외의 소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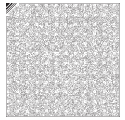
초화류로는 『임원경제지』에 석죽(石竹: 패랭이꽃, *Dianthus chinensis*), 사간(射干: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이 언급되었는데 대체로 높이가 30~60cm 정도 차라며 6~8월에 개화하는 여름 꽃이 된다. 따라서 그 용도는 “꽃피는 계절이 이르면 오색 무늬가 빛나서 비단을 수놓은 병풍이 된다.”는 설명대로, 여러 종류의 꽃을 혼식하여 개화

기에 아름다운 화벽(花壁)을 보기 위한 장식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차폐기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경우 지지대는 단단하면서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소재인 기류(杞柳)가 사용되는데, 김영모(2012)는 이를 ‘영롱담 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렇다면 ‘영롱’의 문양을 만들었던 병(屏)은 어떤 형태였을까? 아쉽게도 현 자료만으로는 이것이 과연 실존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임원경제지』의 저작 배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행해진 것을 모은 것이 아닌 당시에 구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은 백과사전이었고, 중국과 일본에서 유행한 기법까지 모아 수록한 자료리는 점은 영롱형 식물병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론상 화성행궁에 조성된 영롱장(玲瓏牆)〈그림 4〉은 수기와를 포개거나 맞물려서 안팎이 막힌 구조가 아닌 투과되는 형태로 만든 담장이다(김영모 2012: 43~44). 그런데 유연하게 구부러지지만 잘 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 기류는 부재의 특성상 기와로 연출되었던 영롱의 모양 만들기에 적합한 소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키버들기류는 예로부터 바구니나 키 등의 용품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는데, 이를 응용한 식물병이 조선 후기에 개발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상과 같이 기병(杞柳屏; 杞屏)은 영롱장과 같이 내외가 투과되는 특성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지지대가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교목이나 관목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초화류 병에만 쓸 수 있던 형식으로 여겨진다.



【그림 4】 화성성역의궤에 도식된 영롱장 (자료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151)



2) 지지대의 설치

취병은 밭·마당에 두르는 울타리[園籬]가 멧대추나무[酸棗], 버드나무, 느릅나무 등의 줄기를 엮어 수벽을 만드는 것¹⁸과는 달리 지지대를 설치하는 데서 차별된다. 취병은 수목이 정해진 틀 안으로만 차오르도록 구속하기 위해 지지대를 사용한다. 이때 지지대는 마치 병풍의 틀과 같이 작용하여 식물의 수형을 정돈하면서, 바라보고 즐기는 조형적 요소가 되는 만큼 지지대의 설치에 취병의 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지대는 사용되는 식물소재나 용도에 따라 부재가 달라진다. 상기 문헌들에서는 지지대의 부재로 굵은 대나무를 제시했으며, 보다 격식을 차린다면 참나무류를 다듬은 진장목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시렁으로 매다는 부재는 굵은 대나무를 사용하며, 혹 대나무를 길게 자른 것이나 잠장목도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만약 식물소재가 관목이고 취병의 높이가 낮았던 경우 중죽(中竹)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기류를 묶어 만드는 방법의 경우, 2척(약 0.4m)의 폭으로 조성하되 높이와 길이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그밖에 『증보산림경제』에서 세로로 세우는 부재로 직장목(直長木)을 사용하고 가로로 엮을 부재를 긴 대나무로 차별을 둔 점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증보산림경제』에서 “(취병의) 두께와 높이는 담

장과 같아지게 한다.”는 설명은 취병이 담장의 이형(異形)으로 개발된 경계물의 용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다양한 담장의 형식처럼 취병도 필요에 따라 맞춤형식으로 제작되는 임의의 규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병의 설치에 있어 지지대는 정해진 규격과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재되는 수종이나 주인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입지환경에서 담장을 대체하는 선택적 요소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합루 어수문에 달려 있는 협문의 사례와 같이 건축적 형식이 과감하게 응용된 점은 당시 취병이 조선의 조영풍토에 맞춰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준다.

취병의 조성에서 지지대의 설치에 식재가 선행된 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모든 식물병풍이 이러한 순서를 따랐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식물소재가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장미, 도미, 해당화와 같은 장미과 식물¹⁹이나 포도, 덩굴, 등나무와 같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라면 지지대를 먼저 설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침엽수를 사용할 경우는 다르다. 침엽수는 위 식물들에 비해 생장이 매우 더디다. 게다가 취병이 가지를 결속하는 과정을 통해 줄기의 생육방향을 안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덩굴식물을 이용한 병풍의 조성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임원경제지』와 『증보산림경제』도 수목의 식재를 관병법의 제1의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식재 후

【 표 4 】 고문헌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지지대 설치 이후 취병 시공과정의 모식

과정	1. 식물소재의 식재	2. 지지대의 설치	3. 수목의 생장	4. 줄기의 결속·유인 및 가지치기	5. 장식	협문을 설치했을 경우
모식도						

18 『임원경제지·만학지』 작원리법(作園籬法)조; 증보산림경제·복거 장리(牆籬)조 참조.

19 중국에서 죽병 조성에 사용된 소재는 주로 꽃이 아름답고 무성하게 성장하는 장미과 식물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우진 등(2014)을 참조.

얼마간 자라게 한 뒤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이 취병 조성에 있어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3) 줄기의 결속 · 유인 및 가지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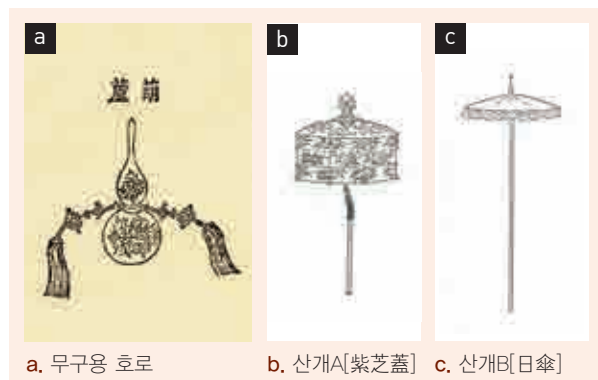
수목과 지지대를 엮는 끈은 삼이나 칩의 껍질을 사용하는 데, 생장하면 부피가 비대해지므로 느슨하게 묶어 주어야 하며, 3년에 한 번씩 다시 잡아 매주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그런데 취병의 내부가 조밀해지는 과정에서, 가지를 결속해 주는 적기로 2월과 7월을 언급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 시기는 양력으로 3~4월과 8~9월경에 해당되며, 수목의 생장시점과 관련이 있다. 먼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취병을 잡아 매어주는 이유는 수목의 휴면기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때는 새순이 나오기 전 또는 돌아오는 직후로서, 생장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묶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8~9월에 결속하는 것은 여름철까지 옷자란 가지나 복잡한 줄기의 상태를 정돈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수목은 10월 이후에 휴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 해 생장에 있어 막바지 시점에 수목을 지지대의 형태에 맞춰 묶어 주는 것은 취병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취병이 목표하는 정형적인 외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측지를 결속하는 행위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원경제지』에서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준다”고 한 것도 고정된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지만, 주기적인 전정의 행위는 결국 맹아를 발달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취병이 차폐물이나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밀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정은 지엽을 조밀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기할 점은 『임원경제지』에서 손으로 잡아 당겨주기 어려운 굵은 가지를 구부러트리는데 ‘곁(鉗)’이라는 공구

를 사용했다는 기록이다. ‘곁’은 물건을 잡는 데 쓰는 연장 즉, 집게를 말하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원예용 집게를 곁이라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4) 부가적 장식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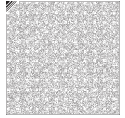
취병의 장식²⁰은 주로 침엽수의 상지(上枝)를 돌출시켜 대칭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아치형 문 위를 강조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것은 『해동농서』²¹와 몇 종의 도상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해동농서』에는 취병의 윗부분에 튀어나온 가지 끝을 엮어서 호로(壺蘆; 葫蘆), 산개(傘蓋)나 날아가는 학의 형태를 만든다고 간단히 설명되었다(표 2). 호로는 호리병 모양의 조롱박이나 호리병 모양의 무구(舞具)를 뜻하며, 산개는 햇빛을 가리는 일산(日傘)을 말한다(그림 5). 이러한 기술은 모두 가지를 돌출시켜 윗부분을 볼록한 모양으로 전정한 외형을 묘사한 것들이다. 또한 날아가는 학의 모양으로도 만들었다는 것은 취병을 꾸미는 기법이 여타의 문헌에 나타난 것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기교들이 가미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장식은 대략 두 가지 방법을 따른다. 그것은 「동궐도」를 비롯한 도상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5】 호로와 산개의 도상 (a : 권미선 2008: 60에서 재인용, b·c : 박성훈 편 2002: 1300에서 재인용)

20 취병 중간에 수식을 위해 수목을 돌출시키는 형식은 여타의 담장이나 중국 죽병의 사례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명칭도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편의상 취병의 돌출된 부분을 ‘장식’으로 지칭하였는데, 차후 이의 명칭은 『해동농서』의 묘사를 근거로 ‘호로(壺蘆)’, ‘산개(傘蓋)’, ‘비학(翔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공식적인 이름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21 표 1)에서 제시된 『해동농서』의 내용은 「임원경제지·만학지」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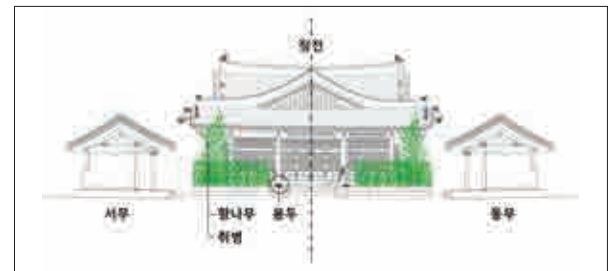


【그림 6】도상자료에 나타난 취병의 침엽수 상지 돌출 장식 (a. 「태평성시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b. 「궁궐도」 부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c. 「을사친정계병」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d·e. 「동궐도」 부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첫 번째 장식방법은 「태평성시도」와 「궁궐도」에서처럼
아치형 문 위에 한 줄기의 가지를 올려 강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들에 나타난 장식 모양은 『해동농서』에서 제
시된 것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호로, 산개, 학과 닮아 있는 점에
주목된다. 「태평성시도」의 취병 장식은 호로의 모양과 비슷
하며(그림 6-a), 「궁궐도」에 나타난 장식의 경우 산개의 모양
또는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6-b). 이러한 점은 문헌과 회화작품 각각에서 나
타난 취병의 묘사가 매우 간밀하게 밀착되어 있으며, 당대의
공감대 하에 성립된 공식적인 실물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
인시켜준다.

두 번째 장식방법은 창덕궁 학금(鶴禁) 남쪽에 조성된 취
병(그림 6-c, 6-d)²²과 「동궐도」상 주합루 취병(그림 6-e)에
서처럼 한 쌍의 수목을 대칭적으로 돌출시킴으로써 공간
에 비례감과 균제미를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푸른빛 일색
인 취병의 단조로운 외관에 변화를 주는 수법으로 볼 수 있
지만, 결과적으로 일대에 균형감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있

다. 비슷한 예로, 동관왕묘 정전 취병에서 양 끝단에 수목을
자연형으로 키워 정형성을 보조하는 효과를 주었던 방식도
유사한 것으로서(그림 7), 취병이 대칭성과 정형성을 창출하
는 한 요소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림 7】동관왕묘 정전 취병의 추정된 모습 및 대칭적 구성
정전을 중심으로 동무·서무, 계단, 취병, 향나무, 용두가 대
칭한다 (자료 : 김형석 등 2013: 45에서 재인용)

이상의 취병을 장식하는 수법은 동일한 식물소재를 이
용하여 조형적인 흥미요소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보통 기
능이나 속성이 달라짐 없이 부가된 장식은 우월함을 표시하
는 장치로 사용되며, 그러한 장식이 궁궐에서 사용된다면 왕

22 〈그림 6〉에서 제시된 「을사친정계병」(1785년)과 「동궐도」(1828년경)는 제작 시기가 40여년 가량 차이가 나는데, 대칭적으로 조성된 취병 장식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조성 초기에 둥근형으로 정전되었던 것이 훗날 자연형으로 길러졌던 것으로 여겨진다(정우진·심우경 2013: 6~7).

의 공간과 그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이상현 2013). 실제로 취병의 돌출장식은 민간의 형식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모두 궁궐 관련 회화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수법은 궁궐 공역에 동원되어 취병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취병장(翠屏匠)들에 의해 개발되었을 여지가 있으며, 취병의 구성에 있어 가장 위계가 높은 기법으로 판단된다(정우진·심우경 2013: 7). 이 역시 향후 원형을 찾아주어야 할 취병의 중요한 부분이다.

창덕궁 주합루 취병의 변화 과정

1. 주합루 창건(1776년) 이후

주합루 어수문 양옆으로 설치된 취병은 규장각이 창건된 해인 정조 즉위년(1776년)에 조성되었다. 사실 조선의 궁궐에 언제부터 취병이 도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동궐도」(1828년경)에 나타난 다수 취병의 조성 시점도 불분명하다. 다만 주합루 취병은 규장각의 완공 직후의 모습을 기록한 김홍도의 「규장각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조 즉위년에 조성된 것만큼은 분명하다(그림 8). 그로부터 50여년이 경과된 모습은 「동궐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9). 「동궐도」에 나타난 주합루 취병은 「규장각도」 취병에 비해 수목을 돌출시킨 장식이 추가된 변화만 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다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은 정조가 자신의 구상에 의해 이룩된 규장각에 취병을 도입했다는 점이며 그것에 어떤 의

도가 있었는지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장각(奎章閣)의 성격을 짚어봐야 한다. 규장각·주합루·어수문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이 건물은 28수(宿) 중에서 문운(文運)을 관장하는 구성(奎星)이 비추고, '임금과 신하(魚水)'가 '하나 되는 [宙合]' 이른바 '어수지의(魚水之義)²³의 성대한 만남을 이루는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²⁴ 요컨대 규장각은 송대의 천장각(天章閣)²⁵과 규장각의 제도를 전범으로 하되 조선 나름으로 형성되어 있던 유교적 의미구조로서 조영되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규장각과 취병의 관계는 당대 조경기술의 집약뿐만 아니라 상징체계가 요소요소에 삽입된 규장각의 공간특성상, 유사한 의미가 부여된 장치의 중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8세기 이후 취병이 문인사대부의 내적 세계를 재현하는 장치로 도입했던 양상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오랜 동양의 문화전통에서 취병에 내재된 학문적 표상이 수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규장각 건립 후에 있었던 괄목할 만한 변화는, 왕실의 조경사업에 취병이 점차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모두의 배경에는 정조의 취병에 대한 애호가 있었다. 문헌과 도상자료를 통틀어 「규장각도」에서 확인되는 취병이 조선 궁궐에서 발견되는 최초임을 환기시켜 본다면, 정조 연간은 취병이 왕실의 조경으로 확대되는 분기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동궐도」에 나타난 취병들이 대부분 규장각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전각 주변에 위치해 있는 점²⁶ 그리고 정조 13년(1789년)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9)의 사당인 문희묘(文禧廟)를 세우면서 어제실의 차폐시설로 취병을 조성한 것에서 증명된다. 이러한 점은 취병이 정조 이후 왕실의 예제공간에서 임금의 위상과 관련된 시설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취병에 대한 정조의 선호는

23 어수지의(魚水之義)는 군신 간의 친한 관계를 일컫는 말로써, 물은 임금으로, 물고기는 신하로 비유되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군신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우진과 심우경(2012), pp.59~60을 참조할 것.

25 송나라 진종(眞宗) 때 어집(御集)을 봉안한 장서각(藏書閣)의 이름.

26 「동궐도」에서 취병은 동궁으로 사용되었던 중희당(重熙堂) 일대에 7개소, 후원 규장각 일대에 2개소, 그리고 후원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옥류천 영역에 1개소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는 모두 왕과 왕세자가 사용하는 곳으로서 취병이 궁궐 중에서도 위계가 높은 곳에 설치되었음을 알려준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상기 장소들이 학문과 관련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왕세자는 다음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였기 때문에 동궁전은 엄격한 제왕의 수업을 받기 위한 독서처라는 용도가 있었다. 정조가 건립한 후원의 규장각의 경우 조선의 인재를 모아 학문을 연구하는 국왕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었고, 옥류천 농산정도 임금이 조용히 휴식하며 독서하던 곳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취병들은 대부분 왕실의 학문적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정우진·심우경 201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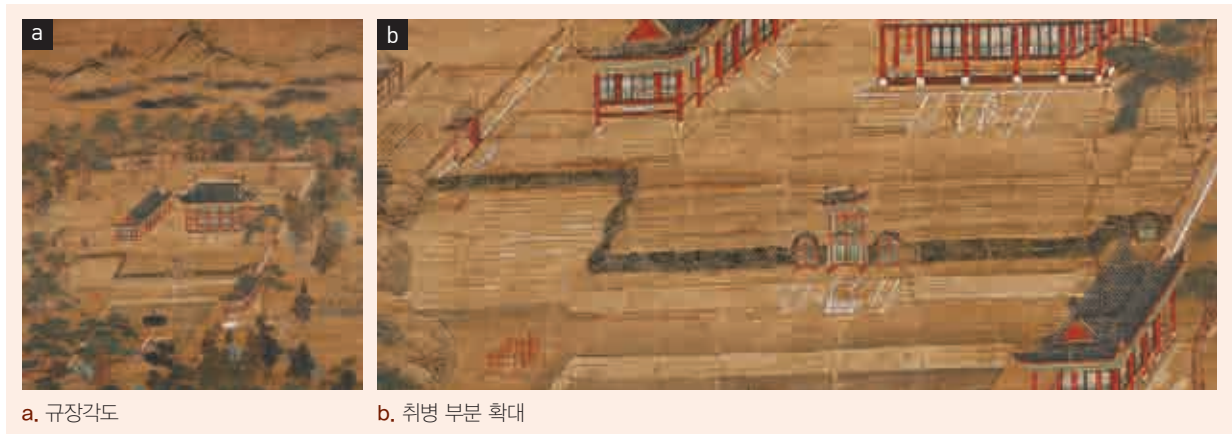
궁궐 곳곳에 취병을 설치하는 노력을 뒤따르게 했으며, 이때 부터 취병이 왕실의 조경시설물로 확대되어 간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민간에서 취병이 대대적으로 확산된 시기도 정조 때로 모아진다. 취병이 나타난 민간의 회화작품은 정조 연간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대부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²⁷ 그림에서 묘사된 조영자들은 고위관직에 있는 관료나 사대부 계층으로 조정을 드나들며 취병을 목도할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림들 상당수의 작자가 왕실의 그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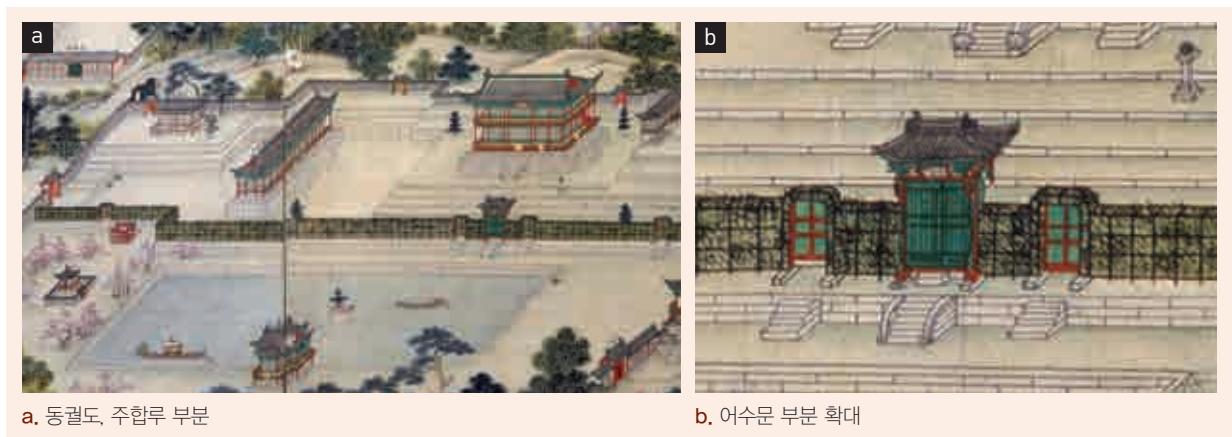
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일했던 도화서 화원 출신이었던 점을 볼 때, 왕실의 공간에서 성행했던 취병의 형식은 다시 민간에 유포되어 보다 정격화된 취병의 유행을 촉발시켰다고 여겨진다.²⁸

2. 고종 연간(1880년대)

1883년 12월부터 1884년 4월까지 고종의 초청으로 조선 을 방문한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은 고종과 순종의 어



【 그림 8 】 규장각도에 나타난 취병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그림 9 】 동궐도에 나타난 주합루 취병 (자료 :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27 정우진과 심우경(2013) 참조.

28 본 연구는 정우진과 심우경(2013)에서 제시된 대로, 취병을 처음으로 제작하고 유행시킨 주체를 한양의 문인 사대부로 보았으며, 이것이 18세기 중엽에 궁궐조경의 한 양식으로 흡수·전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궁궐과 왕실 사묘에 조성되었던 취병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공인인 취병장(翠屏匠)에 의해 만들어졌고, 민간에서 발견되지 않는 돌출된 장식까지 개발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격식과 수준을 갖춘 것들이었다. 당시의 광목할 만한 취병 제작기술의 발전은 민간에서 쓰이는 취병의 형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민간에서 조성되던 취병은 궁궐 조경의 양식을 거지면서 정격화된 형식이 유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을 비롯하여 경복궁, 창덕궁 곳곳의 정경을 포착하여 사진으로 남겼다. 그 중 보스턴 순수미술박물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 한 장²⁹에 주합루 취병이 포착되어 있어 주목된다(사진 1).



【 사진 1 】 1884년 초에 촬영된 사진(Percival Lowell 촬영)

(자료 : Museum of Fine Arts, Boston 소장. "View in the new Palace grounds with artificial pond and island, Seoul"이라는 메모가 남겨짐).

이 사진은 1884년 4월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 사진 속의 환경을 살펴보면, 주합루에 바람을 막을 발이 쳐져 있고, 지당의 물이 얼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촬영된 시점은 겨울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침엽수를 제외한 수목들은 잎을 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어수문 좌우로 뻗은 취병을 보면 침엽수로 보이는 수목이 무성하다. 즉, 고종 때의 취병은 현재 주합루에 재현되어 있는 것과 달리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1885년 4월에 미국 공사였던 조지 푸크(George Clayton Foulk 1856~1893)³⁰가 촬영한 사진에도 비슷한 정경이 포착되어 있다(사진 2). 여기서 침엽수의 모습은 로웰의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보다 넓은 사각으로 촬영되어 당시의 취병의 상태를 가늠케 한다. 이러한 두 인물이 촬영한 사진자료는 주합루 취병의 전말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간취된다.

첫째, 취병에 조성된 수종은 수형으로 보아 주목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사진 속 취병이 주목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임원경제지』와 『증보산림경제』의 관병법과도 일치한다. 침엽수는 궁궐뿐만 아니라, 단묘, 사찰, 강학공간 등 엄숙한 공간을 조성할 때 사용되었으므로, 학문소였던 규장각의 성격과 부합되지만, 현재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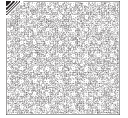
둘째, 사진 상으로는 대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지대가 식별되지 않는다. 「동궐도」에 묘사된 취병에는 모두 지지대가 그려져 있으나, 지지대를 통해 식물을 결속하여 모양을 만들어가는 취병의 특성상 지지대의 부재는 의문을 준다. 그러나 주합루 취병이 규장각의 건립(1776년)과 동시에 조성된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로웰과 푸크가 촬영한 시점은 취병이 만들어진 지 100여년이 시간이 지난 후가 되며, 그만큼 지지대는 낡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취병의 골격이 되는 소재는 지지대의 형태에 따라 이미 모양이 잡혀있는 상태가 되므로 전정만으로도 충분히 형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사진 속 취병은 지지대가 노후 되어 일부 파손된 상태이거나 또는 철거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자체로도 취병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사진 속 취병의 주목은 어수문 동쪽 부분이 서쪽에 비해 무성하다. 이것은 어수문의 그늘에 의해 일사량이 달랐던 결과로서, 현재도 같은 이유로 서쪽 보다는 동쪽 부분이 수세가 발달되어 있다.

넷째, 푸크의 사진에는 취병의 장식으로 보이는 부분이 포착되어 있다. <사진 2-c>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을 보면, 취병의 다른 수목소재와는 달리 수고생장하고 있으며 윗부분만 둥글게 전정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동궐도에 나타난 취병 장식의 실제모습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취병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과 동일한 식재선에 위치된 것은 확인되지 않

²⁹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진에 '인공지와 섬이 있는 신궁 들의 전경[View in the new Palace grounds with artificial pond and island, Seoul]'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NRICP Relic No. 2894'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³⁰ 미 해군이었던 조지 푸크는 1883년 조선 정부의 첫 방미사절단 일행의 통역으로 활동했으며, 1884년 5월 미 해군무관으로 내한한 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20개월 간 대리공사를 맡고 귀국하였다.



으며, 취병의 약간 뒤편에 심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어수문의 좌우 협문의 형태가 지금과 다르다. 사진 속 협문에는 철문 위쪽으로 아치형의 취병 부재와 그 아래 등근 지붕이 있는데, 현재의 협문 지붕은 일본식이 물씬 풍기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취병의 철거와 직결되는 문제로 파악된다. 1894년 고종이 경복궁으로 이어한 후로

창덕궁이 오랫동안 비어 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1910년 8월 일제가 국권을 완전히 찬탈했을 즈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모양이 유지되는 취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줄기가 변곡된 채로 성장되어 무성한 덩굴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취병의 기능을 상실한 침엽수는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수문의 좌우 협문에 새롭게 지



a. 사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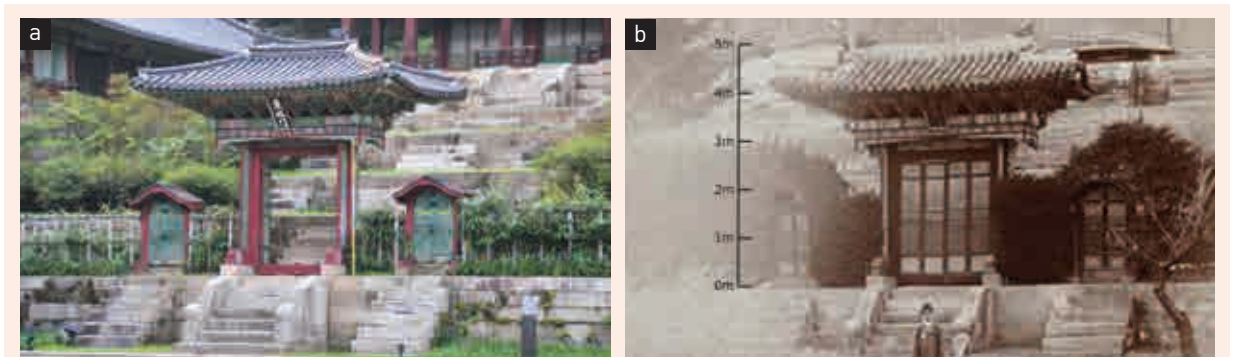
b. 사진B

c. 취병에서 수목 장식 부분(사진B 확대)

【 사진 2 】 1885년 4월에 촬영된 주합루 취병(George Clayton Foulk 촬영,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Libraries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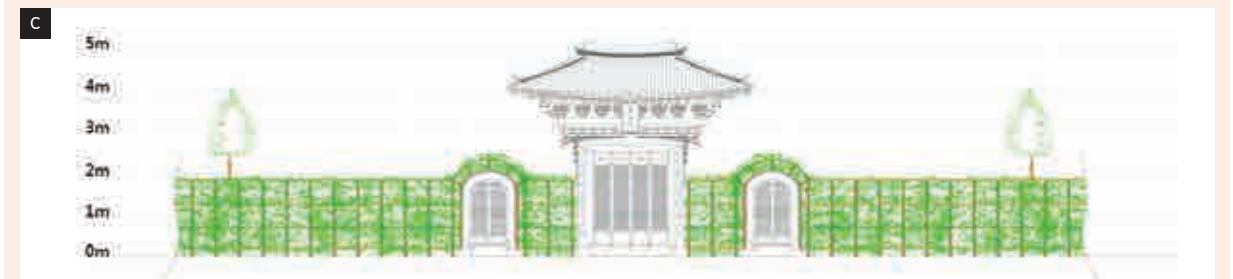
a : "View in East Palace; Dr. and Mrs. Allen, Lieutenants Rogers and Milligan, visitors at palace, April 1885."라는 메모가 있음.

b : "View in East Palace - Lotus Lake and ancestral shrine of kings, Lieutenant Milligan rolls a cigarette"라는 메모가 있음.



a. 어수문과 취병의 현 상태

b. 어수문의 규격과 조응한 취병의 크기



c. 추정된 입면도

【 그림 10 】 고종 연간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추정된 주합루 취병의 규격과 형태 (a. 2013년 간이측량 당시 촬영 사진. b. 1883년 로웰이 촬영한 사진 속의 어수문과 현 어수문의 규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측량된 결과를 적용하여 취병의 크기를 추정함. 사진 속 수목의 윗부분은 오랫동안 전정하지 않아 지지대보다 높이 솟아올라와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c. 이상의 과정으로 작성된 어수문과 취병의 입면. 여기에는 1880년대에 촬영된 사진에서 나타나는 돌출된 대칭 장식이 반영되었으나 취병 뒤편 석계에 대칭적으로 조성된 전나무는 고려하지 않았다.)

붕을 씌웠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현 취병은 1.5m의 높이로 설치되었지만, 사진 속 취병은 거의 2m에 이른다. 로웰 사진에서 어수문과 취병의 상대적 비율로서 비교해 보면, 어수문의 현 크기를 기준으로 취병의 높이는 1.8~2.0m, 협문 위 아치형 지지대 윗부분의 높이는 약 2.5m로 추정된다(그림 10). 이대로라면 취병 앞에서 주합루를 바라보는 시계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며, 주합루 취병이 2m가량 되는 일상적인 담장의 성격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로웰과 푸크의 사진은 현재 멸실되었거나 변형된 주합루 일대의 원형경관을 알려준다. 먼저 주합루 서쪽에 존재했던 서고(書庫)와 서고로 향하는 별도의 동선이 포착된 점은 궁궐 복원에 있어 특기할만한 자료로 파악된다. 또한 태액지(太液池: 현 부용지 가운데에 있는 원도(圓島)의 상태가 현 상태와 다르다. 현재 섬을 두르는 석물은 장대석 위에 자연석을 쌓은 것이지만 사진에서는 장대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섬 위에는 난간석이 남아 있고 주목이 한 주가 강조시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현 상태와의 차이는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지만, 본고와는 큰 관계가 없어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거나 이것들이 취병과 더불어 본래의 경관을 찾아 주기 위해 필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임을 간단히 일러둔다.

3.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강점기 직후 취병은 철거되었지만 취병의 소재로 쓰였던 침엽수 일부는 존치되어 경관수로 활용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몇 장의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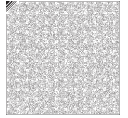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수문 양옆으로 포복형으로 성장하는 향나무가 하층의 지면까지 내려와 있는 장면이다(사진 3). 이것은 앞서 살펴본 1880년대의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원 취병의 소재가 향나무였다는 추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취병이 있던 자리에 주목으로 보이는 주목 여러 그루가 있는 것을 볼 때, 향나무는 한일병합(1910년)

전후로 삽입된 수종임을 알 수 있으며, 식재 시기는 어수문 양측 협문에 일본풍의 지붕이 씌워졌던 시기로 추정된다. 그 외의 향나무는 어수문 주변으로 몇 주에 지나지 않으며, 서쪽 협문 주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당시 늘어뜨린 향나무 식재지는 향단(香壇)으로 불려졌다. 이것은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선생의 생전 저작인 『조선미술사(朝鮮美術史)』에서 향단을 ‘주합루 일대에 몽환경을 형성하는 경물’로 묘사한데서 확인된다. 당시는 취병이 사라진 한참 뒤였다. 때문에 선생은 이 위치에 취병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고, 다만 그것을 본래부터 있어왔던 조선시대 건축예술의 한 종류로 읽어내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당시 어수문 양측 향나무가 주합루 일대에서 주요한 경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종래 어수문·취병의 대응은 일제강점기에 어수문·향나무의 조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선 창정원에 들어가면 폐천장림(蔽天長林) 속에 축석방지(築石方池)가 고요히 별려져 중심에 봉래선산이 있고 멀리 어수문이 바라보인다. 오포작(五包作)에 부연(副椽)이 달린 중옥식 옥개에 단각문(單脚門)으로 조식(藻飾)이 유려할 뿐더러 권형(權衡)이 진기한 묘작이다. 양측이 어울려진 향단(香壇)과 함께 못 가운데에 몽환경(夢幻境)을 그리고 있다. 이 뒤에는 주합고루(宙舍高樓)가 있으나 물 건너 부용정이 더욱 좋다.”(고유섭 2007: 222)

한편 일제강점기의 사진에서 어수문 뒤편 단에 대식(對植)으로 조성된 두 그루의 전나무도 확인된다. 이 전나무는 로웰과 푸크의 사진에서 어수문 서쪽의 것만 크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어느 시점에서 수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오히려 어수문 동쪽의 전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3-d). 보다 시간이 경과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3-e〉에는 어수문 서쪽 전나무가 사라지고 동쪽 것만 남아 있다. 이 전나무는 돌출된 취병 장식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식재되어 정형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설계된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식물의 종류를 판별해 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로웰과 푸크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병의 입면 규격은 거의 2m에 달했으며 식물소재로 침엽수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침엽수 중에서 정확히 어떤 수종이 사용되었는지는 1880년대에 촬영된 사진만으로 분명치 않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촬영된 사진에서도 주목과 향나무가 모두 나타나므로 어느 한 수종이 취병의 식물소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첫째, 1880년대의 사진과 일제강점기 촬영사진을 비교해 보면, 원 취병의 식물소재가 주목이고 향나무는 일제강점기 이후 장식적 목적으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일제강점기 촬영사진에서 어수문 좌우 향나무가 우리 전통조경과는 이질적인 모습으로 가꿔지고 있었고, 1880년대 사진들 속 취병의 식물소재가 주목과 매우 흡사한 수형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향나무가 뒤늦게 심어진 것임을 방증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촬영사진에서 주목과 향나무의 주간부 굵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은 이상하다. 주목이 다소 수령이 오래되어 보일 뿐 향나무를 일제강점기 이후 이식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진 3-i>에 나타난 향나무의 줄기는 『임원경제지·관병법』의 설명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부러뜨린 모습을 보인다. 향나무가 고종 이전 식재된 취병의 소재였다면 구부러뜨린 지점은 분명 옛 취병의 규격을 지시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셋째, 고종 연간에 촬영된 사진 속 취병은 시공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상태로 파악되긴 하지만 1776년 주합루 창건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리 가지치기 등으로 수형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수목의 근경생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지지대로 사용되는 대나무도 사실상 20년 이상



【 사진 3 】 주합루 취병의 변천과정

사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렇듯 취병은 영구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1880년대 촬영된 사진 속 취병은 고종 연간 어느 시점에 전면적으로 교체된 것이거나 개보수 되어 보식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만약 로웰과 푸크의 사진 속 취병이 일부 보식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향나무의 존재는 설명이 수월해진다. 당시 원 수종이었던 주목이 아닌 향나무로 보식되었다는 것인데, 향나무는 동관왕묘 취병의 소재로도 사용된 바 있다.³¹ 나아가 취병의 수종을 점차 향나무로 교체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의 사실관계는 검증이 어렵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사진에서 어수문 좌우로 나타난 향나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적인 외관을 보이고 있으며 사료의 부족과 해석의 모호성에 의해 주합루 취병의 원형규명에 있어 난제로 여겨진다. 고종 연간 취병의 개보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부재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진자료의 정확성에 의해 향나무가 일제 강점기 이후 삽입되었다는 것과 고종 때 보식된 것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개선하여 기술하였으며, 주목이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4. 2008년 취병 재현사업

1) 준비과정

창덕궁 취병 복원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있어 왔으나, 2007년 10월에 있었던 자문회의부터 본격화 되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동궐도」에서 취병이 위치한 곳 중 복원 가능한 곳 2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주합루 취병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5). 이처럼 주합루는 창덕궁에서 취병을 복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동궐도」에서 다른 곳에 비해 취병의 규모가 가장 컸고 복원 후에도 여타의 장소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취병의 재현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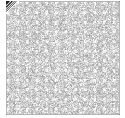
그러나 자문 의견 중에서 취병의 소재로 애초부터 조릿대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다소 의문스럽다. 또한 조릿대와 함께 인동덩굴을 섞어 심으려 했는데, 이것들은 『임원경제지』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소재들이다. 자문회의 내용이 정리된 문건이 워낙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이므로 자

【 표 5 】 취병 재현계획 관련 자문회의 내용

일시	자문 의견	자문위원
2007년 10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궐도상의 취병이 있었던 장소가 현 모습대로 남아 있는 곳은 옥류천 농산정 앞과 주합루 앞 어수문 좌우측이 있음 • 이중 주합루 앞 어수문 화계에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구조물은 대나무를 사용하고 틀을 묶는 재료는 취병굴이나 덕나무를 사용 • 틀 안쪽으로 이대(신우대) 혹은 조릿대를 심어 공간을 채움 • 아치 등의 덩굴이 가야하는 곳에는 인동덩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음 • 구조물이 어수문 좌우측 문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함 • 향나무는 그대로 두고 약간의 전정으로 형태를 조정 • 주합루 앞 화계의 수목도 일부 전정과 이식 등의 정리가 필요 • 취병의 두께는 동궐도 담장 스케일과 비교하여 2차 정도에서 검토 	정재훈, 변우혁, 김성균
2008년 9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상의 대나무 틀 내부 신우대는 취병조성에 부족한 양이므로 주수를 늘려 좁게 식재하도록 함 • 대나무 틀에서 횡대는 3줄로 하고 규격은 직경 3~4cm 정도가 적당함 • 남북방향 횡대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결구하도록 함 • 대나무 틀은 노란대가 아닌 푸른대를 사용하여 취병의 색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음 • 취병 아랫단의 철쭉 목단 등은 이식하고 맥문동 등을 심으면 취병과 함께 상록을 유지하고 정형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음 	정재훈

※ 위 자료는 창덕궁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열람해 볼 수 있었으며, 전문을 옮긴 것이다.

31 이에 관련된 내용은 김형석 등(2013) pp.44~46을 참조할 것.



세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관련 문헌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혹은 덩굴성 식물을 틀어 올리는 서양의 트렐리스를 염두에 둔 재현사업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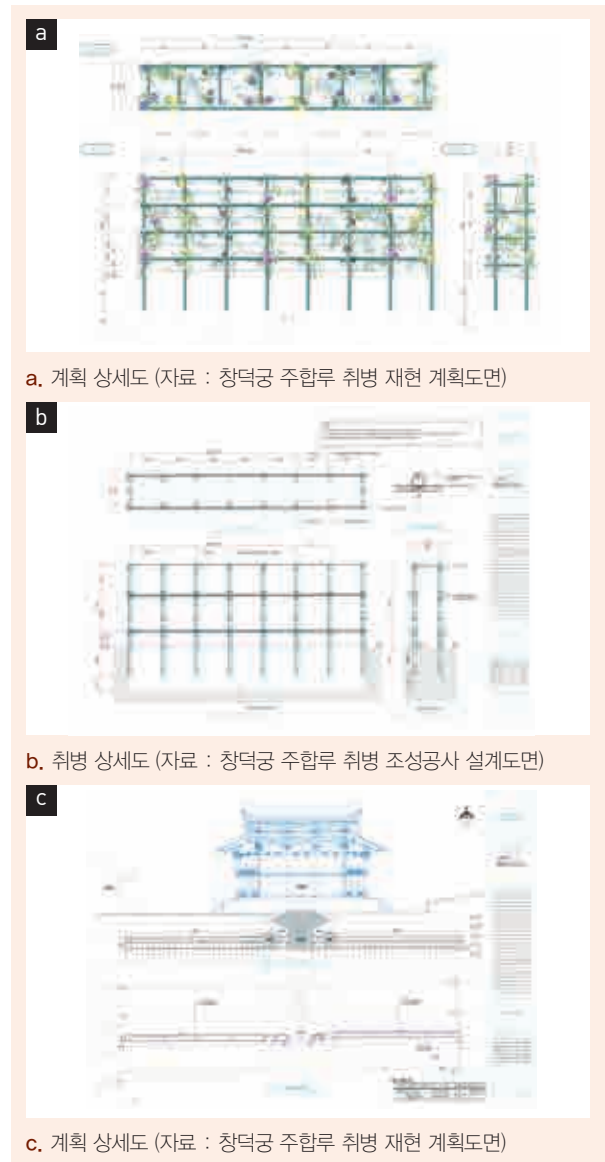
그 후 취병재현 공사를 위해 또 한 차례의 자문회의가 있었다. 취병 시공 직전인 2008년 9월의 일이었다. 이미 실시설계(2008년 5월)³²가 완료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당시 조릿대의 양을 늘리고 지피로 맥문동을 식재할 것이 논의되었다. 지지대의 소재와 규격에 대해서도 자세한 부분이 거론되었으나 실제 시공은 그와는 달리 진행되었다.

2) 공사개요

2008년 10월 주합루 취병이 복구되었다. 본래 일정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5월부터 바로 공사가 착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목 이식 작업 도중 어정 2기가 발견되었고 10월에 서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시공된 취병은 지지대의 길이 29m, 높이 1.5m, 지하부 0.5m 가량 되며,³³ 성인 팔뚝만한 두께³⁴인 지름 9cm의 왕대대죽과 3cm의 중죽을 격자형으로 이어 틀을 만든 뒤 이음매를 닥나무 껍질로 묶어 고정된 것이다. 또한 틀 안에 m²당 약 25본으로 총 300본(설계서에는 m²당 약 37본, 총 600본)의 조릿대가 식재되었다. 2008년 5월 작성된 실시설계 도면을 보면, 본래 조릿대뿐만 아니라 지지대의 사방에 머루, 인동덩굴, 으름의 덩굴식물 98주를 식재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그러나 조릿대가 피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현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시공되었다.³⁵

한편 취병이 설치되는 화계에 있던 수목은 대부분 이식되었으나 어수문 양 옆의 향나무는 왜식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제거되었다. 앞서 밝혔듯이 이 향나무는 일제 강점 직후

이입된 것으로 추정될 뿐 일제의 소산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못했다. 물론 일본풍의 조원수법으로 길러진 점은 인정되거나 판단근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림 11】 계획도면과 실시설계도면 중 지지대 관련 부분

32 실시설계를 맡은 업체는 'Dream 城'이다.

33 실시설계 도면에서 보듯, 세로로 세운 대나무 부재는 0.5m 지하에 매립되었고, 시공과정에서 뿌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root barrier]이 추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고문헌(표 1)에는 기둥을 땅에 묻는다는 설명이 없는 바, 이러한 시공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4 『중보산림경제』에는 “성인 팔뚝 2개만한 굵기의 직장목을 쓴대[用直長木兩臂大者]”라 하였고 『임원경제지』는 “성인 팔뚝만한 굵기의 대나무를 쓴대[用木若竹臂大者]”라 하여 차이가 있다.

35 2008년 주합루 취병재현 공사에 당초 계획과 달리 덩굴류가 제외된 배경에 관한 내용은 당시 시공을 맡았던 서동일(서강천 대표)에 의해 증언되었다.

주합루 취병복원의 방안과 의의

2008년 공사는 ‘창덕궁 주합루 취병 재현 조성공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취병의 재현은 조선시대 궁원에 설치된 역사적 조경양식과 일제 강점기 이후 사라진 취병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는 되었지만, 정밀한 고증의 부재로 원형적인 취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현된 취병은 대나무로 지지대를 엮은 것 외에는 『임원경제지』와 『증보산림경제』에 수록된 내용과 이질적인 것이었으며, “푸른 빛깔의 병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계절 푸른빛을 띠는 신우대를 담장 재료로 썼다”는 문화재청의 설명처럼³⁶ 취병의 속성을 유추한 재현물이었다. 물론 가시적으로 조명된 취병은 그 취지를 살리는 데는 충분했으나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노출됨에 따라 각계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주합루 취병이 보다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현장조사 결과, 주합루의 취병 재현물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식재된 조릿대가 근래의 혹한에 의해 동해를 입어 수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어 상당 부분 고사된 상태라는 점이다(사진 4). 관리사무소에서 응급처리로 고사한 줄기를 잘라주거나 부분적으로 보식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상 사시사철 푸른 취병의 형태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식물소재 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임원경제지』의 내용과 1880년대 촬영된 사진이 말해주듯, 주합루 취병은 상록침엽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주목이었다. 창덕궁 주합루 취병은 우리 전통조경을 대표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본래의 식물

소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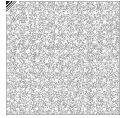
또한 현 취병의 대나무 지지대가 노후 되어 있었다. 대나무가 교차하는 부분은 대나무 끈과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끈은 이미 낡아 헤져있었고,³⁷ 지지대는 사실상 철사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임원경제지』 등의 문헌에서는 삼이나 칩의 껍질로 만든 끈으로 결속할 것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침엽수 가지를 결속시키는 용도이지 지지대를 엮는 용도는 아니었다. 조릿대로 취병을 조성할 것이라면 굳이 대나무 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끈과 철사가 모두 사용된 것은 문헌에서 밝힌 조성방법을 일부 따르면서 결구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짐작되지만 아무래도 어색하다. 따라서 취병의 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한 문헌의 고증에 의한 전통적인 제작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2008년 재현공사 시 참조했던 모델은 「동궐도」였다. 그러나 「동궐도」에서는 대략적인 형태와 위치정보만 알 수 있을 뿐 규격, 식물소재 등의 상황은 얻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웰과 푸크의 사진은 취병의 높이가 180cm를 넘는 거대한 수벽이었으며, 전정이 안 되었을 때에 가장 높은 부분이 거의 3m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변형되기 전의 좌우 협문 지붕의 모습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복원의 기준점 및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그림 10).

셋째, 취병 시공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사적지 조경뿐 아니라 현대 조경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취병은 내재된 전통적 가치만큼이나 뛰어난 기능성과 미감을 갖는 소재가 되므로 지금도 우수한 조경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문헌에 기록된 상록수, 당굴식물, 초화류가 사용되는 식물병풍을 개발하는 것이나 도상자료에 나타난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모두 일차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 다음으로 퍼걸러, 펜스, 트렐리스 그리고

36 동아일보 2008년 9월 18일자 기사 「창덕궁 ‘취병’ 100년 만에 복원한다」

37 『증보산림경제』에서는 가지를 삼이나 칩의 껍질로 이용하여 지지대에 잡아 매어주며 3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a. 2010년 12월 촬영사진

b. 현 상태: 동해 입은 조릿대

c. 현 결구부분A

d. 현 결구부분B

【 사진 4 】 2010년 겨울과 2013년 겨울의 취병 상태 비교

벽면녹화에 사용되는 다양한 식물을 응용한 식물병풍의 제작기법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료, 기법, 형태, 구조, 공법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조선의 취병과 유관한 중국 죽병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넷째, 그동안 보아온 조릿대병도 취병의 한 종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취병을 비롯한 병의 다양한 종류는 정원에 사용되는 상록·낙엽, 침엽·활엽의 다양한 소재를 포괄하며, 그것은 작정자의 취향과 필요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실제로 주합루의 조릿대병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고,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경관적 측면이 우수하다. 이를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식물병의 종류에서 배제시킬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취병의 종류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소재로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한 복원이란 있을 수 없으며, 차후 있을 복원사업도 이전의 착오를 개선하여 과거의 상태에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만드는 또 다른 재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00년 만에 되살린 주합루 취병의 취지를 살려 본다면, 재현은 복원을 이뤄내기 위한 시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급한 복원 보다는 복원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의 관심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복원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원은 현 취병이 본래의 식물 취병에 비해 외소하고 원형적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즉 취병의 복원은 단절된 전통 조경문화를 되살리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조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나라의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구성원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룩한 삶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심우경 2005: 117). 그런 점에서 취병은 우리의 자연환경, 사상, 시대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룩된 우리 조경문화의 한 양식으로 규정된다. 일제강점 이후 사라진 조경문화를 복원·재현했던 그간의 시도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고 차별화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추동력이 되어왔던 것을 볼 때, 복원된 취병은 전통계승의 장치로서 그리고 우리 조경문화를 추체함하게 하는 식물 교제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취병의 특성과 재요소를 분석하고 주합루 취병의 원형적 상태를 고찰한 것으로, 요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병은 상록수를 사용한 식물 병풍에서만 사용된 용어였으며, 모든 식물 소재를 아우르는 형식은 '병(屏)'으로 지시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대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어 화관목을 올린 구조물을 죽병이라 불렀던 병의 공통된 속성 그리고 문집류에서 소나무로 만든 병을 송병(松屏)으로, 기류로 엮은 병을 기병(杞屏)이라 불렀던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취병이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된 데에는 취병이 조선의 지식인에게 있어 자연 산수를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 익숙한 용어이고, 신선사상으로 회자되었던 무산십이봉에서 제 2봉이 '취병'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취병은 '병'의 독특한 수벽 구조물의 형식과 산수에 대한 문학적 표현 및 동양 조경문화에서 전승되어 온 신선사상이 복합화된 조선 특유의 명칭으로 판단된다.

2.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 등의 문헌분석결과 식물 병풍은 지지대의 종류, 식물소재, 식재형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이를 열거하면 (1)대나무 결속 병, (2)진장목 결속 병, (3)기류 유인 병(영롱형), (4)상록수 취병, (5)덩굴식물 병, (6)

초화류 병, (7)자연지반 식재(취지법), (8)분에 식재(취분법)의 8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취병에 식재되는 소재로는 주로 상록수가 사용되었으며, 낙엽활엽교목을 이용한 사례는 문헌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취병은 철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어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명칭 그대로 사시사철 유지되는 경계벽의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3. 식물 병풍의 조성법인 관병법에는 취병의 시공순서를 밝히고 있다. 먼저 사용할 식물소재를 식재하여 얼마간 키운 뒤에 지지대를 설치한다. 이때 식물 줄기를 지지대 안에 구속시키면서 묶고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주는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지대의 내부를 채우면서 정형적 외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취병은 매년 발생하는 측지를 결속 내지는 다듬어 주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구조물이었다. 한편 궁궐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대칭적인 침엽수 장식은 조선에서 취병이 발전·확산과정에서 고안된 기법으로서 대칭식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4. 1880년대에 촬영된 주합루 취병은 주목으로 보이는 침엽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높이가 거의 2m에 달했다. 특히 어수문의 좌우 협문의 형태가 지금과 달랐는데, 사진에는 「동궐도」와 같이 아치형의 구조가 확인되었고 협문에 지붕은 없었다. 일제강점기 때 취병은 철거되었으나 취병의 소재로 사용된 주목이 몇 주 존치되어 있었으며, 식재 시기가 불분명한 향나무가 어수문 양 옆으로 줄기를 늘어뜨린 채로 가꾸지고 있었다. 이 향나무는 고종 연간에 보식되었거나, 한일병합 후 일본인에 의해 이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시기에 어수문 좌우 협문에 일본식 건물의 합각모양을 한 지붕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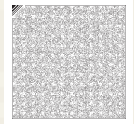
5. 2008년 10월 창덕궁 주합루 취병은 재현의 형식으로 복구되었으나, 정밀한 고종의 부재로 원형적인 취병과는 거리가 먼 재현물에 그치게 되었다. 특히 식재된 조릿대가 동해를 입어 상당 부분 고사됨으로써 취병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가능한 본래의 식물소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된 고문헌과 도상자료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면밀한 고증작업이 필요하며 상록수, 덩굴식물, 초화류가 사용되는 식물 병풍의 개발과 도상자료에 나타난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차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유섭, 2007, 『朝鮮美術史 上 總論編: 又玄 高裕燮 全集1』, 열화당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사진으로 보는 북한 회화: 조선미술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 권미선, 2008, 『문才의 舞具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 2012, 『(알기쉬운) 전통조경 시설사전』, 동녘
- 김형석 · 정우진 · 심우경, 2013, 「서울 동관왕묘(東關王廟)의 공간구성 및 원형경관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4)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 박성훈 편, 2002, 『한국삼재도회 下』, 시공사
- 백종철 · 김용기 · 사공영보, 2003, 「창덕궁 주합루 취병 복원에 따른 화계 정비 방안」 『한국정원학회지』 21(1)
- 변우혁, 1976, 「李朝時代 庭園의 樹木과 配植에 관한 研究」 『環境論叢』 3(1)
- 부산박물관, 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부산박물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華城城役儀軌 上』, 서울대학교 규장각
- 서유구, 1983, 『林園經濟志. 1』, 보경문화사
- 서유구 원저, 박순철 · 김영 역주, 『林園經濟志. 晚學志』, 소와당
- 신영훈, 1986, 『한국문화재대계 국보 21』, 예경산업사
- 심우경, 2005, 「우리 전통조경의 특징과 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 유종림 원저, 한국 농촌진흥청 역, 2003, 『증보산림경제 1』, 농촌진흥청
- 이상현, 2013, 『길들이는 건축 길들여진 인간』, 효영출판
- 정우진 · 심우경, 2012, 「창덕궁 태액지의 조영사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2)
- 정우진 · 심우경, 2013, 「조선 후기 회화작품에 나타난 취병(翠屏)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4)
- 정우진 · 오빛나리 · 심우경, 2013, 「취병(翠屏)의 조영기법과 창덕궁 주합루 취병의 원형 규명」 『한국전통조경학회 2013 춘계 학술 논문발표회 초록집』
- 정우진 · 권오만 · 심우경, 2014, 「명대 원림서에 기술된 죽병(竹屏)의 활용과 의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10』, 朝鮮總督府
- 조재삼 원저, 강민구 역, 2008, 『교감국역 송남잡지 11』, 소명출판
- 창덕궁 주합루 취병 재현 계획도면
- 창덕궁 주합루 취병 조성공사 설계도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昌德宮 · 秘苑 四季(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http://db.itkc.or.kr>
- <http://www.mfa.org>
- <http://www4.uwm.edu/libraries>



Studies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Chwibyeong and Investigating Original Form of the Chwibyeong at the Juhapru in the Changdeok Palace

Jung Woo-Jin^a · Sim Woo-Kyung^b

^a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b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of Chwibyeong (翠屏), a sort of trellis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old documents, and the original form of Chwibyeong at Juhapru (宙合樓) in Changdeok Palace.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as the result of literatures analysis for Imwon-gyeongje-ji (林園經濟志) and Jeungbo-sallim-gyeongje (增補山林經濟), the plant screen was classified as kinds of support[frame] material, plants and methods of planting.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s of Chwibyeong were made of bamboo or the material such as the Jinjangmok (眞長木: a stick of oak) and Giryu (杞柳: *Salix purpurea* var. *japonica*). The evergreen coniferous trees including *Pinus densiflora*, *Taxus cuspidata* and *Thuja orientalis* were mainly used for the plant material of Chwibyeong. The general planting method of Chwibyeong was to plant on the ground, but sometimes the container planting was also found on the artificial ground.

Second, the term of 'Chwibyeong' in the literatures was used in only the screen made by evergreen trees, and the superordinate category term of it was indicated by 'byeong (屏)'. Therefore Chwibyeong was a compound word formed from 'chwi (翠)' which means the characteristics of evergreen and 'byeong' as tree screen which the support was made by bamboo. And Chwibyeong had semantic context which was combined with the literary symbolization to describe a landscape of green peak and Taoist ideology be inherent from 'twelve peaks of Musan[巫山十二峰]' in Sichuan sheng (四川省).

Thirdly, the photograph of Chwibyeong at Juhapru taken by the 1880s, showed that Chwibyeong was made with coniferous trees and was almost 2 meters high. The Chwibyeong at Juhapru was remov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ut a few yew trees(*Taxus cuspidata*) used for Chwibyeong are still remaining. And some *Juniperus chinensis* which the composition time is unclear, were cultivated while hung loose its branches at the sides of Eosumun (魚水門). This Junipers were presumed to be planted by Japanese after Japanese annexation of Korea(1910), and it was judged that both of the roofs of Eosumun's side gates might have been transformed into Japanese style at the same time.

Lastly, Chwibyeong at Juhapru was restored in 2008 but it was restored in wrong way from original form without precise research. Especially Chwibyeong was restored with *Sasa boreralis* which is damaged by frost, so it requires exertion that should revive the originals to plant original material as much as possible. And it needs the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ique for Chwibyeong and the application to current landscape architecture.

Key Words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Joseon Palace, Donggwoldo, Imwon-gyeongje-ji, Screen